

자기소개서

[너와 나, 우리의 약속]

사람들의 말, 대화 속에는 같은 말이어도 어떤 뉘앙스를 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 집니다. 그러나 컴퓨터와의 대화인 프로그래밍은 다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가차 없이 토라지지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만 해주면 대화가 잘 통하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좋아하나 봅니다. 이제는 단순히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의 구조파악과 전체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단순한 코더가 아닌 프로그래머로서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벼랑 끝의 길]

어린 시절 아버지는 사자의 자식 육성 방법을 들려주셨습니다. 새끼 사자를 절벽에서 떨어트려 다시 기어 올라오게 만들어 새끼를 강인하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무슨 그런 방법이 다 있지?’ 생각하였지만, 지금의 저는 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곤 합니다. 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이유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에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전략적으로 짜고, 우선순위를 매겨 가장 중요한 것을 처리하게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실무 프로젝트를 할 때 업무의 중요도에 대한 순위를 매기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5월부터 6월이라는 2개월의 기간 동안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개의 프로젝트를 팀장을 맡아 팀원을 이끌며 원하는 수준까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끝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수행능력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논리야, 놀자!]

활동이나 목표에 대해서 규칙과 지침을 중요시하여 논리적인 결과물을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편입니다. 즉, 즉흥적으로 마음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행동하며, 목표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감각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과제의 연속이며, 그 과제를 잘 진행해야 합니다. 해결책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2022년 5월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같이 진행하는 팀원과 맡은 업무는 달랐지만,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물 방향성은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회의를 주도하였습니다. 목표에 대한 방향과 체계를 설정하며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고 서로의 책임을 다한 것에 큰 자부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